

여성문학연구

특 집

# 16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식

신천 강씨의 한글편지를 중심으로

최윤희

## 16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식

### 신천 강씨의 한글편지를 중심으로

최윤희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신천 강씨에 의해 작성된 편지글을 대상으로 삼아 16세기를 살았던 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 논의이다. 신천 강씨의 자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그녀가 한 가족의 성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족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히 토로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강씨가 가족공동체 내에서 차지할 수 있었던 딸·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입장에서 조명하였다.

신천 강씨는 발랄하면서도 넉넉한 안주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한 모습까지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친정의 부침에 따라 그녀의 언행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씨는 친정과 유대감을 끊임없이 형성하면서 친정을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힘으로 인식한다. 친정에 대한 강씨의 인식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강씨를 강씨답게 하는 요인은 바로 친정이었던 것이다.

한편, 신천 강씨는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자식들에게서 확인 받고 싶어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자식들로부터 봉양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자식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자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받고 싶었던 것이다.

끝으로 신천 강씨는 아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있다. 부부가 젊었을 때 한 약속과 믿음은 나이가 들더라도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강씨의 생각이다. 더불어 벼슬이 없더라도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씨는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에 대한 강씨의 의식이었다.

이와 같은 신천 강씨의 모습이 어느 시대라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여성들의 자의식이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실은 신천 강씨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편지글이라는 서사체를 통해 자기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핵심어: 신천 강씨, 16세기 여성, 편지글, 자의식, 자부와 연민, 집착과 자애, 미움과 사랑.

## 1. 서론

16~17세기 전후로 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17세기 이후에 정형화되고 유형화된 조선의 모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것이 조선시대를 설명하는 중핵이라고 생각해왔다. 예컨대,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으로 파악했던 시각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여성은 강력한 유교적 도덕규범에 속박되어 자기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살았던 ‘희노에 락(喜怒哀樂)을 드러내지 않는 담담한 여인’, ‘엄전하면서도 정숙하게 행동하는 여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색하지 않는 ‘인고의 여인’ 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러한 모습이 조선시대 여성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조선시대 여성의 전일(全一)한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망설임을 갖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머뭇거림의 원인은 무엇인가. 망설임의 이면에는 바로 16세기와 17세기를 사이에 두고 여성사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16세기 여성들의 삶은 조선후기 여인의 그것과는 다를 것

이라는 막연한 상상만으로 그치고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실 16세기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여성사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들은 더더욱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6세기를 살다간 여성에 의해 작성된 편지글들이 발굴되어 16~17세기 이전의 여성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한 자료는 1589년에 죽은 이응태의 묘에서 그의 부인 문씨가 이응태에게 주는 한글 편지글이다.<sup>1)</sup> 이 편지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사별한 남편에 대해 애끓는 심정이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여과 없이 표현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문씨(文氏)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표출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씨 편지를 근거로 삼아 16세기 우리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조선 후기 여성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여기 또 다른 편지인 16세기 전·중반을 살다간 신천 강씨라는 여성의 글을 살펴보자. 이는 강씨가 생전에 그녀의 자손, 친척들과 주고받았던 편지글들로 생생한 그녀의 삶의 궤적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신천 강씨의 편지글을 중심으로 16세기 이전의 여성들의 모습을 고찰해 보려 한다. 16세기 이전의 여성들이 가졌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무엇이었고 이를 어떻게 표출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신천 강씨의 단편적이고 평범한 일상생활의 편린을 따라가는 일은 접어두고 그녀가 지녔던 감정과 사고를 편지글을 통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16세기 이전의 여성들은 조선후기 여성들에 비해 보다 활달하고, 보다 자유스러우며, 보다 감정에 진솔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조선시대의 여인상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진실한 조선시대의 여성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2)</sup>

1) 이 자료가 생전에 그들 부부가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문 또는 애도문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글의 내용을 보면 부인이 남편 이응태에게 바치는 애절한 사랑의 편지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다.

## 2. 신천 강씨의 한글편지 이해를 위한 관문

‘신천 강씨 한글편지’는 그간 ‘순천 김씨 묘 출토 간찰’<sup>8)</sup>이라 일컬어져 왔던 자료이다. 이는 1977년 청원군 북일면 외남리 금천 야산인 夕屏山 辛向에 묻혀 있던 蔡無易(1537~1594)의 繼配 順天 金氏의 묘가 비행장 건설로 이장하게 되었을 때, 그 관곽 속에서 발굴된 3장의 한문편지와 189장의 한글편지로 총 192장의 간찰<sup>9)</sup>들이다.

간찰 전체에 대한 원문 해독은 발굴 후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완성되었는데, 간찰이 임진왜란 이전의 어휘나 문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자료는 임진왜란 이전의 국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발굴 당시부터 국어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고, 지금까지의 이 간찰에 대한 연구도 국어학 분야에 집중되었다.<sup>10)</sup> ‘순천 김씨 묘 출토 간찰’에 대한 문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 
- 2) 이는 16세기의 여성이 17세기 이후 조선후기의 여성을 비교하여 가치의 우열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 3) 순천김씨묘에서 출토된 간찰에 대한 명칭은 조건상에 의해 처음으로 ‘순천김씨묘 출토간찰’이라고 명명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4) 간찰이라는 용어는 한글편지와 한문편지를 함의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간찰이라 쓸 때는 한문편지와 한글편지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고, 별도로 구분하고자 할 때는 한문인지 한글인지의 여부를 밝히도록 한다. 다만,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문편지를 제외한 한글편지에 있음을 밝혀둔다.
  - 5) 강병륜, 「순천김씨간찰의 어휘비교 -어휘 계량론의 측면에서」(『어문논집』 6·7, 1989.); 이은주,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연구」(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안귀남, 「언간의 경어법 연구 : 16~20세기 언간 자료를 대상으로」(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6.); 이병근, 「16·17세기 언간의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이해」(『정신문화연구』 19권 3호, 1996.); 임흥빈, 「필사본 한글 간찰의 해독과 문장 분석」(『정신문화연구』 19권 3호, 1996.); 이광호, 「언문간찰의 형식과 표기법」(『정신문화연구』 19권 3호, 1996.); 박준석, 「16세기 청주 북일면 김씨 묘 간찰의 선어말어미」(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6.); 최명옥, 「16세기 한국어의 존비법 연구 :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 자료를 중심으로」(『조선학보』 164, 1997.)

연구가 그동안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래에 국어학 연구의 성과의 축적으로 비로소 전체 간찰 192장에 대한 주해가 완성되었다.<sup>6)</sup> 간찰에 대한 주해가 완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이 편지글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순천 김씨의 묘에서 출토된 간찰은 모두 192개의 낱장이다. 이 간찰들이 순천 김씨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기는 하나 정작 순천 김씨 본인의 간찰은 없다. 거의 대부분 김씨가 받은 간찰이거나, 김씨 주변 인물들이 받은 간찰들이 김씨에게 전해져 그녀가 소장했던 편지들이다. 김씨가 받은 간찰들의 발신자를 분류해보면, 순천 김씨의 어머니 信川 康氏, 순천 김씨의 아버지인 金 燾, 순천 김씨의 남동생, 김씨의 남편 蔡無易이다. 남편을 제외하면 모두 친정붙이들이다.

순천 김씨 묘 출토 간찰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순천 김씨의 친정어머니 즉, 신천 강씨 발신의 편지글들이다. 강씨가 발신자로 파악되는 편지글이 무려 100여 편이 넘는다. 강씨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과 각각의 편지량은 다음과 같다.

- ① 딸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 107장
- ② 아들에게 보낸 것 3장,
- ③ 딸들에게 보낸 것 1장,
- ④ 며느리에게 보낸 것 3장,
- ⑤ 사위에게 보낸 것 4장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씨가 발신한 편지는 118장이나 된다.<sup>7)</sup> 그리고

6) 조건상, 「청주출토유물 언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78, (1978.) ; 조건상, 「청주출토유물언간에(대하여(其一)), 『논문집』 17, (충북대학교, 1979.) ; 조건상, 「청주출토유물언간에(대하여(其二)) 『논문집』 20, 충북대학교, 1980) ; 조건상,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충북대학박물관, 1981) ; 전철웅,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판독문」 『호서문화연구』 13, 충북대, 1995) ;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118장에 달하는 강씨 편지는 모두 한글로 작성되었다. 사실 김씨의 묘에서 출토된 간찰들은 편지글의 기본 형식인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작성일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수신자를 밝힌 것들도 ‘수오귀아 비 손다’ ‘아기내게’ ‘수너지비’와 같이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과 어휘, 어미의 사용법을 통해 발신자와 수신자를 추적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강씨 발신의 편지가 이토록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글들은 비록 순천 김씨의 묘에서 출토되었지만, ‘신천 강씨의 편지글’이라 할 정도로 신천 강씨를 중심으로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일상생활의 여러 모습과 강씨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며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담겨있는 ‘강씨의 개인사적 자료’라 해도 무방하다.<sup>8)</sup> 이제 출토된 간찰 중에서 가장 많은 편지글을 차지하고 있는 신천 강씨의 편지글을 중심으로 그녀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편지글에 나타난 신천 강씨의 자의식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 안에서 사물 또는 인간과의 관계 맺으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부여받고 스스로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성격을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간다. 즉,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의식을 생성하고 한편으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한다. 이는 특정 시대에 국한되는 현상도 아니요, 남녀노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7) 박준식, 앞의 논문 참고. ; 조항범, 앞의 책 참고.

8) 출토된 편지의 발신자가 대부분 신천 강씨라 하여 ‘신천 강씨 간찰’이나 ‘신천 강씨 편지글’이라고 통칭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출토 편지 가운데는 강씨 이외의 발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따르고 그 가운데 발신자가 신천 강씨인 편지들을 특별히 ‘신천 강씨의 편지글’라 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아니다. 신천 강씨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강씨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외계(外界)는 다름 아닌 가족과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돌레를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그녀가 살았던 16세기는 조선전기부터 강조해 온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유포(流布)로 모계보다는 친계 중심의 가족공동체로 변모되던 과도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천 강씨의 자의식은 가족 성원으로서 신천 강씨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족관계 사이에서 발생된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히 토로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강씨가 가족공동체 내에서 점유(占位)할 수 있었던 지위로 나눠보면 딸·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입장이다. 이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강씨가 생각하고 느꼈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한다.

### 1) 自負와 憐憫

신천 강씨는 아버지 강의(康顛)와 헌납(獻納) 정사결(鄭士策)의 딸이었던 어머니 정씨 부인 사이에서 3남 3녀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났다.<sup>9)</sup> 아버지 강의는 이성현감, 검사복을 두루 거쳐 정 3품 무반직에 해당하는 창원대도호부사를 지냈고, 조부인 강증진은 승문원 판교를 지냈으며, 증조모는 바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점필재 김종직의 여동생이다. 이른바 강씨 집안은 관력(官歷)있는 든든한 집안이었음이 분명하다. 강씨 가문의 사람들이 이처럼 대대로 큰 벼슬에 올랐었다는 것은 강씨 집안의 경제력도 그에 상응했음을 의미한다. 강씨 집안은 영남 선산(善山) 지역의 명문가로 그 일대의 토지를 두루 소유했고 그곳으로부터 공물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한낱 향촌에서만 확보하는 집안으로 치부(致賻)해서는 안 된다. 강씨의 친정은 영남 지방에 물적 토대를 두면서 한양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명문 가문의 형태를

9) 『卍川集』, 『신천강씨세보』, 『조선왕조실록』, 『한국계행보』, 『국조인물고』 등의 자료들에 의하면, 강씨의 형제 자매는 6남매로 큰 오라비인 강경선(1514~1565), 이씨 집안에 시집 간 큰 언니, 공씨 집안으로 결혼한 둘째 언니(?~1543), 다음이 강씨가 된다. 강씨 아래로 강유선(1520~1549)과 강종선이라는 남동생 두 명이 더 있다.



갖추고 있었다. 강씨는 정 3품 해주 목사를 지낸 김수렴의 아들 김훈에게 시 집간 이후에도 친정 남매들과 같이 혹은 가까이 살고 있었다.<sup>10)</sup> 그녀는 여전히 친정과 왕래했고, 친정 식구들과 끊임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sup>11)</sup>

그는 무명 필무명 야상무명 뵈 7톤 거손 혼자도 주디 아니 주거늘 하 달라 하니 열 피를 주고서 누미 비돈 므스 일 그리도록 뵈다 며느리는 그저 드러다 보디 호스 논 므스 일고 호고 아니 주고 (80)<sup>12)</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강씨는 남편으로부터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호사스럽게 치른다고 꾸짖음을 받는다. 다음의 인용문(89)에서도 강씨가 빚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자, 오히려 남편은 헛되이 써서 그런 것이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리 와도 누미 빈 소개 다시 드러서 빈 말 니르면 허소히 써 그런가 호고 노히여 하니 세사 말도 드러와다 닐어 의논도 묻호고 안파수미 누미 빈도 묻 가파 주그면 나눌 우어니 이베 연주랴 (89)

위의 두 인용문을 볼 때, 강씨가 소비성향이 크다 혹은 적다고 단정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강씨의 남편 김훈은 평상시 그녀의 소비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틀림이 없다.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신천 강씨의 소비성향은 소유 재산이 있었거나 혹은 뜻대로 운용(運用)할 수 있었던 자

10) 『舟川集』 「祭孔氏姊文」 吾兄弟姊妹 同居京城

11) 내 누일 아침 밥일 먹고 선산서 부스보고 오나돈 나조 거터 니이게 호디아(121)볼 수 있듯이, 선산은 강씨 집안의 고향이고, 강씨 집성촌이다. 아침을 먹고 다녀오겠다는 말에서 친정과 자유스러운 왕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12) 인용 자료는 조항범의 주해서를 참고했다. 인용 자료에 붙은 번호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이고, 조항범의 주해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후의 인용문과 인용 자료의 번호는 여기에 근거한다.

신의 경제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강씨의 경제력 즉, 소비의 공급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친정일 수밖에 없다.

강씨의 남동생 강유선의 문집 『주천집(舟川集)』에 의하면, 강씨는 공씨(孔氏) 집에 시집간 둘째 언니가 병으로 죽자 어린 조카들을 데려가 의식을 충당해 준다.<sup>13)</sup> 조카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은 그녀의 시가(媿家)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면 강씨 소유의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분명해진다.

내 모미 늘거 몸뻘 되고 이런 등병을 어더 이도 내 짜히언마는 껍껍 철리물 경히  
너겨 와서 알파 누어서 두 손근 마조 쥐여 가슴 우히 연고 나드롤 디내며 (73)

빈동 불 설흔 말 서울로 갈제 히여 달라 청흐니 내 모기라 맞더더니 괴니 다 바  
다 두고 게 가니도 만흐니라 호고 아머라니 아니코 아니주고 (80)

위의 인용문은 모두 강씨가 셋째 딸에게 보낸 편지이다. (73)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강씨 소유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80)의 자료에서는 자신의 몫으로 받는 쌀 즉, 공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자신의 몫이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재산은 시집에서 받은 것이라기보다 친정으로부터 받은 유산인 것이다. 이는 16세기에 여전히 남귀여가(男歸女家) 혼속과 더불어 남녀 균분상속제가 잔존했던 사실과도 부응한다. 이렇듯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던 친정이 든든하게 있었던 강씨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넉넉한 안주인의 모습을 지녔다. 남귀여가혼 아래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잔존해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다음의 편지글을 간과할 수 없다.

13) 如天德之血氣未定者，慮於千里之遠，道路之次，不能衛護，而或貽不測之患，姑令玉婢，抱養于金氏姊家，而衣食之資，取足於此，以待我老母之行，靈其知耶否。『舟川集』「祭孔氏姊文」

나도 하 선사니 7이업시 가난하니 아모 것도 못 보내니 정이 업세 (48)

위의 인용문은 강씨가 사위 채무이에게 보낸 편지이다. '선산'은 경북 선산으로 강씨 친정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곳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친정이 가난하여 사위인 채무이에게 보낼 물건이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친정의 모습은 간 데 없다.

그렇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친정은 이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미약해졌다. 시양어머니의 시묘살이 중에 죽은 아버지에 이어 이흥남형제의 무욕으로 남동생 강유선이 장살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루아침에 강씨 가문에 화가 미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강씨가 친정에 대해 가졌던 마음가짐과 그로 인한 태도도 이전과 달라진다.<sup>14)</sup> 강씨의 발랄하고 넉넉한 안주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암울하고 우울한** 성향을 질세 풍긴다.

요컨대 강씨는 발랄하고 넉넉한 모습을 띠기도 하고 **우울한** 성격을 띠기도 한다.<sup>15)</sup> 이 같은 강씨의 태도는 친정의 부침과 맞물린다. 강씨는 친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자신의 본가에 대한 자긍심으로 말미암아 언행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표출했다는 사실이다.<sup>16)</sup> 이른바

14) 강씨의 큰 오빠인 강경선은 家禍 이후 일생을 술과 시로서 지내다가 세상을 마쳤다고 한다.

天性孝友 早中生員 遭家禍後 時詩酒優遊以終

15) 118장의 강씨 편지글에서 강씨의 태도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서울에 거주했을 당시 딸에게 보낸 편지는 발랄하고 호탕한 분위기를 갖고 있으나, 지방으로 거주를 옮긴 이후의 편지는 암울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16) 강씨가 친정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편지에서 시부모와의 관계 즉, 며느리로서의 역할이나 책임, 그와 관련된 심정적 所憾를 표출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편지가 딸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 수신자들이 시댁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손아랫사람이었다는 점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훈에게는 아우가 있었다. 곧 신천 강씨에게 시부모를 비롯한 시동생과 동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손아랫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일망정 媿家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법하나 媿家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신천 강씨는 媿家와는 긴밀한 유대

16세기 여성이 친정에 대해 지녔던 의식과 친정과 맺었던 관계를 신천 강씨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 2) 執着과 慈愛

신천 강씨는 김훈과 사이에서 3남 4녀를 두었다.<sup>17)</sup> 그녀가 보낸 대부분의 편지글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안부로 점철(點綴)되어 있다. 편지를 보면, 딸이나 며느리의 출산 또는 그녀들의 병으로 인해 밤새워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막내아들인 학개가 두 형들과 달리 경학을 공부하지 않고 무예를 배우러 다니는 일에 대해 걱정하며, 첫째와 둘째 아들인 여물과 여흠을 믿는다는 간절한 어머니의 소망도 드러나 있다. 딸과 아들에게 물자(物資)를 공급해 주면서 옷감은 언제 물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편지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강씨의 세심함이 드러난다. 언제 어느 때 누구네 독을 빌려 장을 얼마큼 담고라는 내용들도 있다. 어머니로서 시집간 딸에게 초차 살뜰하게 챙겨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쥬 훈 두로미 내 먹던 거시라 괴은 설은 제 머거라(13)

위의 인용문은 셋째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강씨는 자신이 먹던 소주를 보내면서 서러울 때 마시라고 당부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싶어 첩을 얻어 주려고 했다는 사실은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강씨의 이러한 행동은 자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굴절되어 집착하는 형상으로 보인다.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친정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7) 김여흠, 김여물(1548~1592), 김여울「택」으로 기록된 곳도 있다」(?~1604), 하만택에게 시집간 큰 딸, 이충정에게 시집간 둘째 딸, 채무이에게(?~1594)에게 시집간 셋째 딸, 민기서에게 시집간 막내 딸 이 그들이다. 편지가 출토된 묘가 셋째 딸의 묘이다.

그래서 넘치는 것은 어찌면 모자람만 못.한가 보다. 결국 그녀가 자식들에게 쏟아 부었던 사랑은 오히려 섭섭함으로 돌아온다.

다만 내 주시글 만히 나하셔 쓰리나 며느리나 호나히 나물 드려서 간소히여 주  
기고전 쓰디 업서 혼자 안자시니 주시기조차 그러컨다 호노라마는 …(중략)… 쉬  
괴어미 올 듯호건마는 나 두지 못호고 날 뵈와 왔다가 슈영 것 일호면 나종 제 살  
일도 어려오니 못호니 내 팔주롤 호호호고 인화 (79)

위 인용문을 보면, 강씨는 자식들이 병든 자신을 데려가 같이 살만도 한 데 그렇지 않아 섭섭하다는 심정을 딸인 순천 김씨에게 토로하고 있다. 자신을 봉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은 자식들이 강씨를 데려다 봉양하면 해결되는 감정일지 모른다. 그러나 보다 강씨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맘을 헤아려 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식들이 어머니인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데 있다. 자식들에게 갖는 서운함이 짙게 배어 나온다.<sup>18)</sup> 강씨의 이러한 마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듀고 일도 아돌돌 괴이고 종달 괴이니 대강만 스치고 모러거니와 그런가 맞  
디고 인노라 아돌드리 하 씨롤 브리니 모러노라 성위니란 노미 내게 땡세 서 주고  
죽게롤 지그미 이리 와도 유무 년 〇〇렸거든 속저리라 개나 다랴나 주시도 맛당  
티 아네라(172)

위 편지글의 앞 부분은 강씨가 거느렸던 매죽이를 자식들(순천 김씨로 추정된다)에게 증여하려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위의 인용문을 보면, 강씨는 아들들이 피를 부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넘쳐나는 사랑을 주었던 자식들이 결국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머니를 속이는 일이

18) 내 너를 다시 못 보고 주글 주롤 었디 아는다 스며 술하 울고 스노라 미돈 주시기 내  
마물 아니 드르니 무디호 학개야 7룰칠 쓰디 업세라(55)

었다. 자식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식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강씨의 마지막 승부수는 무엇인가.

죽식다리 근심이 죽식 이러구니 모습 들 더 업서 내 큰 병이 나로다 출히 주그면  
내 안하나 아니 석환하라 너를 샹시 7이업시 밎다니 네초차 소기고 가니 더욱 애  
도노라(197)

위의 인용문은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밎던 자식도 자신을 속이니 자식 걱정으로 큰 병이 날 성싶단다. 죽어야 맘이 편할 것이라 한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아침, 저녁으로 자식이나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지만은 오래 살까 근심이라 한다.<sup>19)</sup>

실제로 신천 강씨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죽겠노라’, ‘죽을 것만 같다’, ‘곧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된다. ‘인생은 도히 인논 이리 귀키 아녀의셔 죽고져 호더 수미 긴디 지그미 사라 이시니(12)’, ‘이리 와서 죽게 되여시니 내 설오미 괴호니로다마는 운쉬 그러니 주시 기라 호호라(30)’, ‘이제는 다리를 윈 다리를 드디돌 몰히여 안자시니 좀 머근 나모 7 터여시니 이싱도 편흔 나리 업스니 쉬 죽고져 저호노라(92)’, ‘나 죽고져 저 호디 몰 가니 이셔도 7이 업세라(162)’, ‘내 주글 저기 아니면 아머려나 아니 사라나라(166)’, 등등의 자탄적인 술회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죽는다’는 소리같이 위협스러운 말이 있을까. 신천 강씨가 자식들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아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신의 서러움, 외로움에 대한 절규에서 기인한다. 그 서러움과 외로움은 자신이 자식에게 쏟았던 사랑의 깊이와 비례한다.

요컨대 신천 강씨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죽고 싶지 않다’는 방어적 표현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19) 무수미 안녕터 아녀 듀일 주시거나 보와니 죽거지라 워니로다마는 오래 살까 근심미 7업나(77)

외로움과 슬픔을 알아달라고 자식에게 인식시키고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는 자신은 어머니로서 마땅히 봉양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자식들에게서 확인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마음을 강씨 자신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그녀의 자녀에 대한 생각 곧 자녀관을 알 수 있다.

### 3) 미움과 사랑

홀어미 쫄 더디고 오니 유독고 모던 사르미라하고 샹시 나롤 더접기롤 구더 돈  
니던 쥬인만 너기고 이리 와서도 온 적도 심상기타하고 노기타 내고하니(80)

위의 인용문은 신천 강씨가 남편이 부임한 청도로 따라갔을 때, 김훈이 강씨에게 보인 반응에 대한 섭섭함을 딸에게 적어 보낸 간찰이다.<sup>20)</sup>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남편이 부임한 청도로 오기 전에 강씨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과 같이 지냈다. 그녀는 왜 홀시어머니와 어린 딸을 두고 남편을 쫓아간 것일까?

치샹티 되니도 처비 업스니 만호더 여슈너 말자 칠방되니 호화히어 처블하니(93)

네 아바니미야 본디 첩 묻 어더 병이 되여시니(144)

남편 김훈은 말년에 이르러 겨우 종 5품의 벼슬을 제수(陞授)받고 청도로

20) 편지 (69)는 김훈이 셋째 딸과 막내딸에게 보낸 편지로 ‘…나는 에 와 각벼리 호는 이리 업거니와 주메돌 하 오르느리니 일로 말 드롤가 호노라 거니와 내라 내 타시 라 조심히세 나든더 소기 호노라 …나 늘고 주석 다 버리고 심곡 심스니 혼자 와서 늑미 구청만 호노라 하니 우여니 부절업스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보면 김훈이 청도에 부임한 초기에는 혼자 내려왔음이 틀림없다.

부임한다. 강씨가 생각하기에 남편 김훈은 평소 칩을 얻고 싶어했는데 상황이 뜻갈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런 남편이 벼슬을 가졌으니 칩을 들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마침내 강씨의 걱정대로 김훈은 칩을 들인다.

강씨는 애달프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팔자라고 생각한다.<sup>20)</sup>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투기하는 몹쓸 여자로 치부한다.<sup>21)</sup> 자식들조차도 강씨가 아프다고 연락하면 강씨가 시샘하느라 그러는 것으로 여기니 그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가 끝이 없다.<sup>22)</sup> 마침내 신천 강씨는 딸에게 ‘내 가슴 피오는 뜨디나 스고 마자 스노랴’는 심정으로 자신의 답답함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날 새옴흐는가 너겨 몹씨 너기고흐니 내 마옴미 주시기 업고 내의 고통고 요시미 부흔 나니 버리 알폰되는 각별티 아니디 미양 속머리 알프고 가슴 답답고 알프고 음식글 술수리 머거도 누리디 마오 내 괴시는 날로 파려코 도흔 두시 니러 안자셔 마리나 호고 이시니 종이나 주시거나 누 알리 바미면 새도록 울오 안자셔 새알 나리 수 업스니 내 팔जू를 혼 호노라 (28)

새옴허여 날 악정흐느매라 온가지로 나를 띄여흐니 병이니 업스면 식환홀 거시니 칼홀 쥐여서 모글 덜어 죽고자 노홀 가지고 모글 미여 두라 죽고져 문져 모고 모수물 자바 노커니와 내 모미 하 허하고 모수미 간 더 업서가기 나들로 더어가니 이 모숨 문 자바 설워 었던 저기면 동산놀 보라고 뜰히 나도다가 계오구려 모수물 자브

21) 수시는 팔지니 내 팔지 이리 상오나이 되어 잇거니 속저리랴 (94)

22) 김훈은 자식들에게 보내는 간찰을 통해 신천 강씨가 투기를 한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다. ‘네 모시 하 투기도 요동 업스니 내 모숨도 역시미 나니 두어라 엿씨리 시브니 내 모수문 아모 덕도 브튼 더 업시 인노라 (83)’

23) 종이나 누미나 새옴흐다 홀가 늑다려도 알폰 수시글 아니코 인노라...아들두리라도 나를 새옴흐다 홀 시 내 열아흐랜 날브터 알폰 거술 지그미 못쳐여서 알로라 누어떠셔 알티 아닌는 병이니 견되노라마는 모수미 미양 설오니 띤디 막막히예라 (41)  
알패라흐면 새오므로 그런가호고 아드리라도 와 엿터니 홀 부니니 내 알폰 줄도 니르디 아니노라 (73)



니 바미나 나지나 혼자 안자셔 하 울고 님물 쓰니 모기 며여 음식글 물 먹고 (73)

위의 (73)의 간찰에서 강씨는 '칼로 목을 찢러 죽을까', '목을 메여 죽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결하려고 생각하다가 간신히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씨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시샘 때문일까? 김훈이 첩을 얻을까봐 청도로 쫓아내려 간 것일까?

강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답은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녀는 다림질조차도 못하는 첩이 맘에 들지 않지만, 첩과 스스로 직접적인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첩으로 인해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첩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간찰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강씨로 하여금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보다 큰 고통은 정작 남편의 무정함과 박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심하게,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을 원망한다. 별거를 하는데 남편은 자신에게 세 줄 이상의 편지글도 하지 않는다.<sup>24)</sup> 남편은 평생을 괴로움을 함께 겪어 준 아내가 서러워 중병이 든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sup>25)</sup> 강씨의 '애뜰고 노호오미사 어디다 견' 줄 수 있겠는가.

네 아바님드려셔 자내 나눌 살아 내고라 히여놀 그 녀놀 내여 보내도더라 혼자  
눈물 이실 거시오 나는 이리 둥히 되니 벼슬 더계 나는 물 살게 되과라(115)

위의 인용문을 보면, 마침내 강씨는 김훈에게 첩을 내치라고 한다. 그러

24) 응전녀들 드려다가 주고 잇든 뽕다는 식앗 말일다 내 이 너니 뽕다니니 이는 처블 사모리라 잠말말라 밭과 치 뵈웨라 뵈웨라하고 처비라 언디 말라 홀디 간나히라 여던노라 뇌여 잠말 말라코 이시니 므슴 말하리 아중 혀고 듀일 드리고 단고 드렸고 내게 유무도 세 주려셔 더 아니하느니라 나도 아똥 말도 아닌노라 (41)

25) 아무리 내 간고하여 설워 이리 둥병드러 이셔도 헤디 아니하니 설오미 무흔 안똥물 일국도 니치이디 아녀 설오니 정시니 아모드러 간 줄 업고 아득히니 내 주글 저기라 (93)

나 내친다 하더라도 김훈은 또 벼슬 덕택에 혼자는 지내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녀는 남편이 벼슬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벼슬로 인해 남편은 첩을 얻었고, 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남편의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무심한 사람이 되었다.

부처 소이 둥커니 민던 일 거자이리라 히어도 나는 고디 아니 듣다니 혼 나히나 저머시면야 더도록 설오랴 제 발와디 다호고 늘거 주글 대에 둥병이 되여사 이리 혼니 더 설웨라 설웨라 (73)

부부 사이에 서로 굳게 믿는 것은 옛날 일일 뿐이요 젊을 때 뿐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훈이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면 서럽지나 않을 것이다. 예전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자신을 박대하니 더더욱 서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강씨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강씨가 되돌리고 싶은 것은 남편이 벼슬은 없었지만, 그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시절인 것이다.

아무리 마수물 잡자 히어도 혼디 사던 이리 니준 적 업시 그리오니 날 위히어 벼슬 마라 날 위히어 쳐블 말랴(40)

이 같은 여인을 첩에 대한 시샘으로 푹푹 몽친 여자라 할 수 있겠는가. 남편에 대한 강씨의 마음은 미움과 사랑이 교차되는 애증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벼슬이 없을망정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젊었을 때의 약속과 믿음은 나이가 들더라도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강씨의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에 대한 강씨의 의식이기도 하다. 이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 그 점이 16세기를 산 여성의 매력인 것이다.

## 4. 결론

역사 속에서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왔던 여성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는지를 그들이 써 놓은 글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16세기 중·후반을 살다간 신천 강씨는 그야말로 16세기를 대표하는 보통의 여인이다. 양반가문의 딸로 태어나 자신의 집안과 엇비슷한 가문으로 시집가서 그저 평범하게 일생을 마친 여인에 불과하다. 그러한 여인에게 주목하는 이유, 그리고 그녀가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너무도 평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상의 여인, 보통의 사람, 보편 대다수의 사람을 대표한다. 그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녀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그 고민을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때로는 강한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표출한다**.

신천 강씨는 친절과 유대감을 끊임없이 형성하면서 친절을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힘으로 인식한다. 친절에 대한 강씨의 인식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강씨를 강씨답게 하는 요인은 바로 친절이었던 것이다.

둘째, 강씨는 자녀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인도해주고 장년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더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자신이 자녀에 대해 사랑을 쏟은 만큼 자신도 자녀들로부터 그만큼 누리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부모와 자녀의 정리(情理)를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생각을 자유로이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강씨의 자녀관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남편과의 사랑에 대한 맹세는 곧 남편과 자신 사이의 약속과 믿음은 나이가 들더라도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강씨의 생각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강씨의 의식이다. 그리고 이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강씨의 부부관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16세기를 살다간 신천 강씨! 그녀는 보다 발랄하고 생기있게 그 시대를 살아갔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아는 현명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시집 간 딸과 주고받은 편지글을 통해 그녀가 지녔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것이다. 누가 16세기에 이런 여성이 존재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그녀들의 삶과 그녀들의 의식을 살피는 일에 다가갈수록 놀랍고 신기하다. 그러므로 신천 강씨의 한글편지글은 여성들의 자기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인 것이다. 이제 나아가 보다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여성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이 땅의 여성들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 필자 : 경희대 강사

Abstract

Woman's identity in 16th century  
the letter be written korean alpabet  
the letter written by Mrs. Kang using the korean alpabet

Choi, yun-hee

This research, a study of the letter written by Mrs. Kang, has been done to understand how a woman in the 16th century finds her identity. By looking at how Mrs. Kang described and expressed her feelings as a member of one family and the relationship with in her family, we would be able to see her self-consciousness. Which means that we would see and understand how Mrs. Kang described herself as a daughter, a daughter-in-law, a wife and a mother in a family.

Mrs. Kang showed a vivid and general personality, or sometimes depressed.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ough her words and actions had been changing affected by her maiden home. Mrs. Kang built up a close relation with her maiden home and realized that was the courage of her existence. Her feelings and thoughts about her maiden home got stronger than any thing else. Her maiden home was the main reason of Mrs. Kang to be herself as she got older.

On the other hand, Mrs. Kang constantly wanted to be recognized by her children. And she expressed that it would be right thing for her to be supported by her children. She wanted to see her existence and her identity through her children.

Also Mrs. Kang made her voice louder as a wife. She thought that the promises and trust between a wife and a husband should not be changed under any circumstances or as time passes. A couple should live together under any difficult situation, and this was Mrs. Kang's thought on the conjugal relations.

It shouldn't be overlooked that Mrs. Kang's thoughts and her image could be found in any times. The important and the valuable point is that Mrs. Kang expressed her identity and existence through a letter.